

치 사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하늘에는 푸르고 선선한 바람이 높이 지나가고, 땅에는 서리가 희고 깨끗한 풍상고결(風霜高潔)의 경치가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맑고 투명해져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불광사 불광법회 사부대중들에게 종단을 대표하여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과 더불어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종지(宗旨)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마다의 참다운 자성(自性)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복덕을 갖춘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종단의 역할이고, 불자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참된 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여, 무명(無明)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전법도생의 서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불교는 바로 이와 같이 전법도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종단과 사찰은 이를 위해 활동하는 곳입니다.

한국 근대불교사에서 전법도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지식이 바로 금하광덕(金河光德) 스님입니다. 광덕 큰스님은 전법보살로 불릴 만큼 일평생 전법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분입니다. 전 종도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전법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고, 전법행자가 지켜야 할 모범을 보여주신 대지식입니다.

1974년 11월 전법의 일념이 우뚝 선 지 어언 40년의 성상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뀔만한 시간이기에도, 종단 안팎의 상황은 상전벽해와 같이 달라졌습니다. 그 긴 세월은 견고한 의지도 나약하게 만들고, 잘 지은 건물도 낡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불광은 사세가 더욱 확장하고, 가람의 규모는 더욱 우뚝하고, 전법의 원력은 변함없이 뜨겁습니다. 전법도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종단의 대표로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불광이 마치 내일처럼 기쁘고 수희찬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40년의 풍상(風霜)에서 한결같이 전법도생의 선두에 서서 한국불교계의 모범

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는 광덕 큰스님의 크신 원력과 서원이 있고, 아래로는 전법지상(傳法至上)이라는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실천해 온, 문도의 여러 스님들과 사부대중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특히 지난 2004년 불광사 회주로 취임하여 불광사를 수도권 최대의 전법도량으로 중창한 지홍스님의 원력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문도스님들의 성원과 회주 지홍스님의 원력, 그리고 불광법회의 신심 깊은 불자들의 참여로 중창불사를 완공하고 맞이하는 40주년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뜻 깊게 다가옵니다.

도심 전법의 새 역사를 개척해 온 불광사 불광법회의 창립 4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이 환희와 기쁨을 바탕으로 더욱 정진하여 미래 100년의 전법사를 더욱 거룩하게 써가는 전법도량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불광사와 불광법회의 공덕이 모든 불자님들께 지혜롭고 너그럽게 전해지고, 부처님의 가호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